

1. 중심 화제와 주제 \_ 요약하기

‘중심 화제’를 찾는다?

‘중심 화제’를 찾는 것은 지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주어’를 찾는 것입니다. 지문에 등장하는 모든 어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어휘’를 가려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어휘’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 중심 화제를 찾기 위한 방법

- ① ‘추상어’ 중에서 반복되는 말을 확인한다. ⇨ 화제어(話題語, topic word)
  - ↳ 어떤 대상의 ‘특성’을 가리키는 관념적 어휘
    - ⇨ 구체어: 감각에 의해 인식되는 특정한 대상(=특수어)
      - 특히 시각적으로 관찰되며, 공간 속에 존재하는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들은 모두 구체어
- ② 화제어 중에서 중심이 되는 말을 고른다. ⇨ 중심 화제어(中心語, key word)
  - ↳ • 서술의 주성분
    - 수식을 받는 말
    - 열거된 정보를 포괄하는 말

▶ 오답을 피하는 방법

- ① ‘보조 화제’를 중심 화제로 착각하지 말 것!
  - ↳ 중심 화제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활용하는 보조적인 글감
    - 중심 화제보다 지시 범위가 넓은 상위 화제
    - 중심 화제와 범위가 같은 동위 화제
    - 중심 화제보다 범위가 좁은 하위 화제
    - 중심 화제와 범주가 다른 관련 화제
- ② ‘보조 관념’을 중심 화제로 착각하지 말 것!
  - ↳ 중심 화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활용하는 글감
    - (예) 그녀는 장미다.
    - ⇨ 말하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녀’(원관념)입니다.
    - ‘장미’는 비유적 표현(보조 관념)이지요.
- ③ ‘무의미어’를 중심 화제로 착각하지 말 것!
  - ↳ 글의 내용을 이어나가기 위해 활용하는 메타적인 어휘
    - (예)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000다.
    - ⇨ ‘가장 중요한 것’은 무의미어, ‘000’이 전달하고자 한 중심 내용입니다.

‘주제’를 찾는다?

주제라는 것은 나무의 줄기처럼 다양한 부분들을 흐트러지지 않게 붙잡으면서도 자신은 중심에 숨어 있다.

가지와 잎들이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줄기 자체는 숨겨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주제란 이야기를 구성하는 여러 성분 자질들을 결합시키는 중심 원리이지만, 주제가 제대로 기능하는 이야기일수록 주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주제’: 지문에 제시된 중심 화제의 모든 서술어를 합해 만든 ‘단 하나의 문장’

지문의 많은 서술어를 경쟁시켜서 가장 중요하고도 포괄적인 하나의 서술어를 찾아내야 합니다.

정답을 골라내기 위해 ‘가답안’을 사용하면서, 오답 패턴을 익혀두고 소거 기준으로 함께 사용 해야 합니다.

▶ 출제자가 오답을 만드는 방법

① 중심 화제를 확대하여 오답을 만든다.

↳ 몸에 작은 옷은 단번에 알지만, 큰 옷은 일단 입을 수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문에서 선지 밖으로 나가는 내용이 없네? 안전하군.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맞지 마세요. 주제 찾기 패턴은 항상 ‘가장 적절한 것’을 묻습니다.

(예) 공통 발자국 화석을 분석한 지문의 주제를 ‘공통 화석 탐구’로 만든다.

② 지문을 대표할 수 없는 부분적인 내용으로 오답을 만든다.

↳ 지문에 있는 내용이라고 모두 주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주제 찾기 패턴은 ‘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예)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한 지문의 주제를 ‘신록의 아름다움’으로 만든다.

③ 중심 화제에 대한 논점을 왜곡하거나 거짓 정보를 활용하여 오답을 만든다.

↳ 글은 ‘무엇(중심 화제)’에 대해서 ‘어떠하다/어찌하다/무엇이다’라고 서술합니다.

‘무엇’을 적절히 잡은 뒤, 서술 부분에서 글쓴이의 의도를 왜곡하거나 거짓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설명문의 주제를 ‘~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으로 만든다.

지문에 없거나 지문과 상충되는 정보를 주제문에 넣는다.

▶ 중심 화제를 찾기 위한 알고리즘

1. 선지 공통 키워드 파악하기 = 지문의 중심화제 힌트 얻기



2. 지문에서 중심화제에 대한 정보를 요약

반복 제거 / 상세화 제거 / A가 아니라 B / A 하지만 B

‘그래서, 그러므로, 따라서’ 뒤에 집중 / 첫 문단과 마지막 문단에 집중



3. 가답안 만들기



4. 선지로 가서 가답안과 가장 비슷한 답안 선택

※ 주제 유형에서 지문을 왜곡하는 패턴> 중심화제의 확대, 부분적 정보, 논점 왜곡, 틀린(거짓 정보)

2019년 국가직 7급

문 1. 다음 글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사람은 일곱 자의 몸뚱이를 지니고 있지만 마음과 이치를 제하고 나면 귀하다 할 만한 것은 없다. 온통 한 껍데기의 피고름이 큰 뼈 덩어리를 감싸고 있을 뿐이다.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신다. 옷을 입을 줄도 알고 음탕한 욕심을 채울 줄도 안다. 가난하고 천하게 살면서 부귀를 사모하고, 부귀하게 지내면서 권세를 탐한다. 성날 때는 싸우고 근심이 생기면 슬퍼한다. 궁하게 되면 못 하는 것이 없고, 즐거우면 음란해진다. 무릇 백 가지 하는 바가 한결같이 본능에 따르니, 늙어 죽은 뒤에야 그만둘 따름이다. 그렇다면 이를 짐승이라 말하여도 괜찮을 것이다.

- ① 자연의 이치를 알고자 하는 욕구는 사람에게 본능적이다.
- ② 마음으로 본능을 다스리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 ③ 빈부 격차는 인간 삶의 지향성에 영향을 준다.
- ④ 근심과 슬픔은 늙기 전까지 끊이지 않는다.

2020 지방직 9급

문 2. 다음 글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들의 사소한 행동을 살펴보면 그들이 자신의 환경을 개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단순한 생명체는 먹이가 그들에게 헤엄쳐 오게 만들고, 고등동물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 땅을 파거나 포획 대상을 추적하기도 한다. 이처럼 동물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행동함으로써 환경을 변형시킨다. 이러한 생존 방식을 흔히 환경에 적응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생명체들이 그들의 환경 개변(改變)에 능동적으로 행동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

가장 고등한 동물인 인간도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생존이나 적응을 넘어서 환경에 대해 적극성을 보인다. 이는 인간의 세 가지 충동—사는 것, 잘 사는 것, 더 잘 사는 것—으로 인하여 가능하다. 잘 살기 위한 노력은 순응적이기보다는 능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인간도 생명체이다. 더 잘 살기 위해서는 환경에 순응할 수만은 없다.

- ① 인간은 환경에 적응해 왔다.
- ② 삶의 기술은 생존을 위한 것이다.
- ③ 생명체는 환경을 능동적으로 변형한다.
- ④ 인간은 잘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한다.

2019년 지방직 9급

문 3.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3)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명백히 모순되는 두 개의 견해를 취했다. 그들은 인간의 위치를 자연계 안에서 해명하려고 애썼다. 역사의 법칙이란 것을 자연의 법칙과 동일한 것으로 여겼다. 다른 한편, 그들은 진보를 믿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자연을 진보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끊임없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데에는 어떤 근거가 있었던가? 헤겔은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고 자연은 진보하지 않는 것이라고 뚜렷이 구분했다. 반면, 다윈은 진화와 진보를 동일한 것으로 주장함으로써 모든 혼란을 정리한 듯했다. 자연도 역사와 마찬가지로 진보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진화의 원천인 생물학적인 유전(biological inheritance)을 역사에서의 진보의 원천인 사회적인 획득(social acquisition)과 혼동함으로써 훨씬 더 심각한 오해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오늘날 그 둘이 분명히 구별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것이다.

- ① 진보와 진화에 관한 견해들
- ② 역사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
- ③ 인간 유전의 사회적 의미
- ④ 자연의 진보에 대한 증거

2. 전개 방식 \_ 구조 확인

서술 전개 방식 패턴 = ‘어떻게 이야기 하는가’

논지전개 방식과 서술 방식의 개념어  
+  
선지의 구조에 따라 O/X를 따질 줄 아는 능력

▶ 서술 전개 방식 패턴의 선지에 제시되는 개념어

1. 설명: 독자에게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쓰이는 방식

(1) 정의: 사물 또는 대상의 범위를 규정하거나 그 사물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

종개념	증차 요소(변별 요소)	(최근)유개념
사람은	( )	동물이다
피정의항		정의항

(2) 확인(지정): 누구냐 - [ ] / 무엇이나 - 밑줄 긋기

복두칠성은 어느 계절에나 북쪽 밤하늘을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복두칠성을 흔히 국자에 비유하는데, 그것이 국자라면 국을 쏟을 때 국이 흐를 마지막 두 별을 잇는 직선상에 있는 별 중 가장 밝고, 그 두 별의 간격의 다섯 배쯤에 있는 별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북극성이다.

정의 - 유개념 = 확인

(3) 분석: 하나의 관념이나 대상(구조)을 구성 요소들로 나누어 가는 과정

컴퓨터의 구조는 크게 본체와 주변 장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컴퓨터의 본체는 중앙 처리 장치와 기억 장치로 이루어져 있다. 컴퓨터의 본체에는 중앙 처리 장치와 함께 기억 장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디스크라고 하는 보조 기억 장치도 저장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컴퓨터는 본체만으로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주변 장치가 함께 있어야만 제대로 정보를 처리하게 된다. 컴퓨터의 본체로 정보를 들여보내는 입력 장치가 필요하고, 컴퓨터의 본체를 통해 처리된 자료를 드러내어 보여 주는 출력 장치가 필요하다. 자판은 입력 장치에 해당된다. 컴퓨터의 본체와 연결되는 모니터와 프린터는 모두 출력 장치이다.

(4) 분류와 구분: 한 무리의 사물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갈라 짓는 것

분류 - 종개념들을 모아 유개념으로 묶어가는 것

구분 - 유개념(類概念)에서 종개념(種概念)으로 내려오면서 가르는 것

(1) 경기도, 황해도 남부, 충청남도의 북부를 묶어 기호(畿湖) 지방이라 한다. ( )

(2) 우리나라는 관서 지방, 관북 지방, 관동 지방, 기호 지방, 호남 지방, 영남 지방으로 ( )된다.

(5) 예시: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이나 진술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진술 방식

민화는 화가의 창조적인 예술품이라기보다는, 집 안팎을 단장하기 위해 그렸거나, 민속 신앙과 관습에 얽힌 내용의 그림을 대중의 요구에 따라 오랜 세월을 두고 되풀이하여 그린, 실용적이며 장식적인 그림이다. 이것은 정통적(正統的)인 음악이나 무용, 문학이 아닌 민속 음악, 민속 무용, 민담과 같은 대중문화(大衆文化)에 속하는 것이다.

(6) 유추: 생소하거나 어려운 어떤 내용을, 보다 친숙하고 쉬운 다른 것에 대응시켜 설명

이처럼 재료가 구조에 참가할 때에 생기는 변화, 이것은 문학과 실생활을 구별하는 본질적 요소가 된다. 건축가가 집을 짓는 것을 보면, 위에 말한 것이 쉽게 이해될 줄 안다. 그는 어떤 완성된 구조를 생각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모아서 적절하게 집을 짓기도 하고, 주어진 재료들을 가지고 그것으로 지을 만한 집을 짓기도 한다. 어쨌든, 그는 모래, 자갈, 목재, 시멘트, 철근 같은 재료를 가지고 건물이라고 하는 하나의 구조를 완성한다. 이 완성된 구조의 구성 분자가 된 재료들은 그 본래의 재료와 전혀 다른 성질과 모습의 것이 된다. 즉, 시멘트와 적당한 비율로 배합되어 벽에 발린 모래는 트럭에 실려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성질, 다른 모습의 사물, 즉 구조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학의 구조를 논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절대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7) 비교와 대조: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찾는 일

비교 - 대상 간의 공통점 위주로 설명하는 것  
대조 - 대상 간의 차이점 위주로 설명하는 것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모두 탈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개의 탈것의 생김새가 비슷하다. 둘 다 땅 위에서 타는 것이고 바퀴가 두 개라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오토바이는 연료가 있어야 움직이고, 자전거는 연료 없이 움직인다는 차이점이 있다.

(8) 과정(過程):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한 변화나 단계 또는 기능, 작용 등을 밝히는 진술 방법

수영을 할 때에는 팔, 다리, 목 등 관절의 각 부위를 오른쪽, 왼쪽으로 회전시켜 주고 근육 마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육을 충분히 풀어준다. 그 다음 온몸에 충분히 물을 끼얹은 후 물속에 들어간다. 물에 들어 간 후 기본자세는 가능한 한 몸을 수평하게 일직선으로 유지하면서 유선형으로 하여 물의 저항을 줄인다.

(9) 인과(因果): 원인(原因)과 결과(結果). 왜 그것이 일어났는가, 결과가 무엇인가.

애초에 춘향의 저항은 이도령을 위한 수절을 방해하는 신관 사또에 대한 저항에 지나지 않았다. 신관 사또는 구관 사또에 뒤이어 남원 부사가 된 뒤에 춘향에게 수청을 요구함으로써 그녀의 수절을 가로막는 방해자에 불과했다. 후대로 오면서 춘향의 정절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신관의 박해를 점점 가혹하게 묘사하게 된다. 그 결과 신관 사또는 잔학한 인물이 되고 나아가서는 탐관오리까지 변모되었다. 그는 연약한 부녀자에게 가한 잔혹 행위로 말미암아 민중의 증오심을 유발하면서 쉽게 탐관오리의 성격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신관에게 ‘포악한 탐관오리’라는 딱지를 붙임으로써 춘향의 항거는 정당성을 부여받게 되고, 강렬한 민중적 호응을 얻게 된다.

2. 묘사: 구체적인 대상을 말로써 그려 보이는 기술 양식

(1) 객관적 묘사(과학적 묘사): 주관에 배제하고, 대상이나 상황을 사실에 충실하게 묘사하는 것

앞발은 아직도 빈 껍질을 붙들고 있다. 그리고 맨 나중으로 몸 중간에 담겼던 껍질로부터 빠져나온다. 이것으로 매미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허물 벗는 일은 끝이 난다.

(2) 주관적 묘사(인상적, 문학적 묘사): 주관적 인상을 통해 대상을 그려내는 것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 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릿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앞장선 허 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꿈무늬에 선 동이에게는 확실치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멋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3. 서사: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진전시키기 위해 움직임이나 변화, 진행 과정을 진술하는 방식

소녀가 물속에서 무엇을 하나 집어낸다. 하얀 조약돌이었다. 그리고는 별떡 일어나 팔짝팔짝 징검다리를 뛰어 건너간다. 다 건너가더니만 책 이리로 돌아서며, “이 바보.” / 조약돌이 날아왔다.

4. 논증: 아직 명백하지 않은 사실이나 원칙에 대해 그 진실 여부를 증명해 보이는 것

↳ 논증은 자기주장을 하나의 문장 형식으로 나타낸 '명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나 근거인 '논거', 논거를 사용하여 명제의 타당성을 증명해 나가는 과정인 '추론'으로 이루어진다.

(1) 연역적 방법: 일반적인 원리나 원칙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인 어떤 사실을 이끌어 내는 방법

↳ 이미 알고 있는 일반적 명제를 바탕으로 새로운 명제를 이끌어 내는 추론 방법

생물은 모두 성장한다.	[대전제] - 일반적 원리
사람은 생물이다.	[소전제] - 구체적 원리
↓	↓
그러므로 사람은 성장한다.	[결론] - 구체적 결론

(2) 귀납적 방법: 구체적인 사실들을 근거로 하여 일반적인 원리나 원칙을 이끌어 내는 방법

↳ 곧, 특수한 또는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방법

제비도 날개가 있다. 까치도 날개가 있다.	[구체적인 사실들]
이들은 모두 새이다.	[공통점]
∴ 그러므로 모든 새는 날개가 있다.	[결론]

(3) 변증법적 방법: 비판적 의문을 제기하여 가장 완벽한 결론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

↳ 하나의 이론[정(正)]에 대해 이의를 제기[반(反)]하면 그것을 받아들여 새로운 이론[합(合)]을 정립하는 과정을 반복

2019 지방직 7급

문 1. 밑줄 친 부분의 주된 설명 방식은?4)

보살은 자기 자신이 불경의 체험 내용인 보리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일체의 타인에게도 그의 진리를 체득 시키고자 정진하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보살은 나한과 같은 자리(自利)를 위하여 보리를 구하는 자가 아니고 어디까지든지 이타(利他)를 위하여 활동하는 것이다. 나한이 개인적 자각인 데 대하여 보살은 사회적 자각에 입각한 것이니, 나한은 언제든지 개인 본위이고 개인 중심주의인 데 대하여 보살은 사회 본위이고 사회 중심주의인 것이다.

- ① 유추
- ② 묘사
- ③ 예시
- ④ 대조

2021 국가직 9급

문 2. 다음 글의 주된 서술 방식은?

변지희가 천 리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를 찾아왔다. 내가 그 뜻을 물었더니, 문장 공부를 하기 위해 나를 찾아왔다고 했다. 때마침 이날 우리 아이들이 나무를 심었기에 그 나무를 가리켜 이렇게 말해 주었다.

“사람이 글을 쓰는 것은 나무에 꽃이 피는 것과 같다. 나무를 심는 사람은 가장 먼저 뿌리를 북돋우고 줄기를 바로잡는 일에 힘써야 한다. ... (중략) ... 나무의 뿌리를 북돋아 주듯 진실한 마음으로 온갖 정성을 쏟고, 줄기를 바로잡듯 부지런히 실천하며 수양하고, 진액이 오르듯 독서에 힘쓰고, 가지와 잎이 돋어나듯 널리 보고 들으며 두루 돌아다녀야 한다. 그렇게 해서 깨달은 것을 헤아려 표현한다면 그것이 바로 좋은 글이요, 사람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는 훌륭한 문장이 된다.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서사
- ② 분류
- ③ 비유
- ④ 대조

2019 기상직 9급

문 3. <보기>의 논리와 같은 방식이 사용된 문장은?5)

<보기>

내가 당신에게서 넥타이를 빌렸을 때, 그때 내가 당신 물건을 어떻게 다뤘었소? 소중하게 다루었소. 빌렸던 것이니까 소중하게 아꼈다가 되돌려 드렸지요. 이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그대를 빌리는 동안에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다가 언젠가 이별의 시간이 되면 소중하게 되돌려 줄 것이요.

- ① 공부는 등산과는 다른 것이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행위이고 등산은 몸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 ②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라는 노랫말은 원숭이와 사과의 유사한 점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 ③ 우리말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영어를 들여오는 일은 우리 토종 물고기를 돌보지 않은 채 외래종 물고기를 들여온 우(憂)를 또다시 범하는 것이다.
- ④ 오늘날 고리타분한 전통에만 집착하는 것은 현대 문명의 편리하고 신속한 생활을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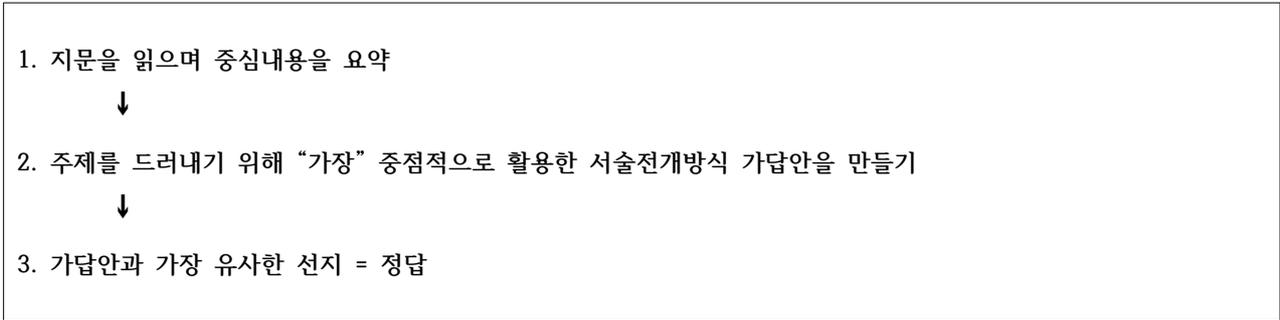
2020 국가직 9급

문 4. 다음에서 제시한 글의 전개 방식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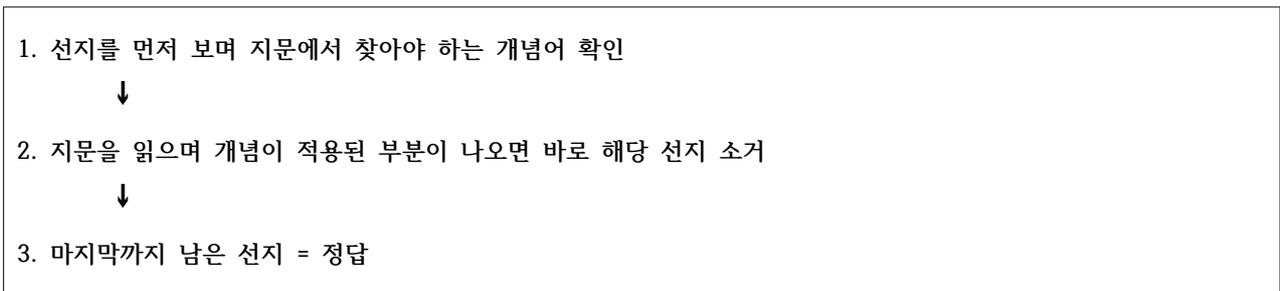
‘인과’는 원인과 결과를 서술하는 전개 방식이다. 어떤 현상이나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이나 힘을 제시하고 그로 말미암아 초래된 결과를 나타내는 서술 방식이다.

- ① 온실 효과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할 때 가장 심각한 영향은 해수면의 상승이다. 이러한 현상은 바다와 육지의 비율을 변화시켜 엄청난 기후 변화를 유발하며, 게다가 섬나라나 저지대는 온통 물에 잠기게 된다.
- ② 이 사회의 경제는 모두가 제로섬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제로섬(zero-sum)이란 어떤 수를 합해서 제로가 된다는 뜻이다. 어떤 운동 경기를 한다고 할 때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지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 ③ 다음날도 찬호는 학교 담을 따라 들었다. 그리고 고무신을 벗어 한 손에 한 짝씩 쥐고는 고양이 걸음으로 보초의 뒤를 빠져 팽이처럼 교문 안으로 뛰어들었다.
- ④ 벼랑 아래는 뽕뽕한 소나무 숲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새털구름이 흩어진 하늘 아래 저 멀리 논과 밭, 강을 선물 세트처럼 끼고 들어앉은 소읍의 전경은 적막해 보였다.

▶ 전개 방식 긍정 발문 유형 공식 알고리즘



▶ 전개 방식 부정 발문 유형 공식 알고리즘



2021 국가직 9급

문 5. 다음 글의 설명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빛 공해란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이나 조명 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인간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국제 과학 저널인 『사이언스 어드밴스』의 ‘전 세계 빛 공해 지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빛 공해가 심각한 국가이다. 빛 공해는 멜라토닌 부족을 초래해 인간에게 수면 부족과 면역력 저하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농작물의 생산량 저하, 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 ① 빛 공해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 ② 빛 공해의 주요 요인인 인공조명의 누출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자료를 인용하여 빛 공해가 심각한 국가로 우리나라를 제시하고 있다.
- ④ 사례를 들어 빛 공해의 악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3. 배치, 배열 \_ 구조 활용

접속어(접속 부사)의 종류와 의미

관계	예	
대등 병렬	순접	그리고, 또, 또한 등
	역접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만, 한편, 반면에, 거꾸로 등
	선택	또는, 혹은 등
인과	원인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 이유로 등
	결과	그러므로, 그러니까, 따라서, 그러한즉(그런즉), 그래서 등
첨가	또, 게다가, 더욱이, 덧붙여 등	
전환	그런데,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만 등 ※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만’ 등은 역접도 가능	
강조	특히, 주목할 점은, 더욱이, 요컨대, 중요한 것은 등	
앞뒤 등가	곧, 즉, 다시 말해서, 달리 말하면 등	

▶ 배치를 위한 <보기> 활용법

1. 배치해야 할 대상인 <보기>가 접속어나 지시어(이, 그, 저)로 시작하는 경우  
→ 앞에 올 내용을 추론할 수 있으므로 <보기> 먼저 읽는다.
2. 그 외의 경우
  - ① 지문을 먼저 읽으며 어색한 부분을 찾거나 주제를 파악한다.
  - ② 그 뒤 <보기>를 읽고 그 내용과 역할을 따져 배치한다.

▶ 배치 유형 공식 알고리즘

1. 배치해야 할 부분 읽기 (요약 및 표지 파악)  
↓
2. 지문을 읽으며 조건을 충족하는 위치 찾기  
↓
3. 배치 ※ 배치해야 할 부분에 표지가 없을 경우 지문 먼저 읽기

2019 국가직 9급

문 1. 다음 글에서 <보기>가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8)

<보기>

아침기도는 간략한 아침 뉴스로, 저녁기도는 저녁 종합 뉴스로 바뀌었다.

철학자 헤겔이 주장했듯이, 삶을 인도하는 원천이자 권위의 시금석으로서의 종교를 뉴스가 대체할 때 사회는 근대화된다. 선진 경제에서 뉴스는 이제 최소한 예전에 신앙이 누리던 것과 동등한 권력의 지위를 차지한다. 뉴스 타전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교회의 시간 규범을 따른다. (㉠) 뉴스는 우리가 한때 신앙심을 품었을 때와 똑같은 공손한 마음을 간직하고 접근하기를 요구하기도 한다. (㉡) 우리 역시 뉴스에서 계시를 얻기 바란다. (㉢) 누가 착하고 누가 악한지 알기를 바라고, 고통을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존재의 이치가 펼쳐지는 광경을 이해하길 희망한다. (㉣) 그리고 이 의식에 참여하길 거부하는 경우 이단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 ① ㉠                      ② ㉡                      ③ ㉢                      ④ ㉣

▶ 배열 유형 공식 알고리즘

1. 배열해야 할 각 부분을 요약하면서 표지(접속부사, 지시어, 말꼬리, 부사어, 보조사 등) 확인  
↓  
2. 부분적 절대 조건 확인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 선별  
↓  
3. 선지에서 절대 조건 어긴 것 소거한 뒤, 두괄/미괄/양괄 정리

2021 국가직 9급

문 2. ㉠ ~ ㉣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9)

폭설, 즉 대설이란 많은 눈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내리는 현상을 말한다.

㉠ 그런데 눈은 한 시간 안에 5cm 이상 쌓일 수 있어 순식간에 도심 교통을 마비시키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 또한, 경보는 24시간 신적설이 20cm 이상 예상될 때이다.

㉢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된다.

㉣ 이때 대설의 기준으로 주의보는 24시간 새로 쌓인 눈이 5cm 이상이 예상될 때이다.

㉤ 이뿐만 아니라 운송, 유통, 관광, 보험을 비롯한 서비스 업종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 ①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2020 국가직 7급

문 3.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10)

(가) 이처럼 먼 대 면 소통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따른다.  
 (나) 인간의 소통 방식 중 가장 오래되고 직접적인 것은 먼 대 면 소통이다.  
 (다) 그러나 점차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전신,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의미를 주고받는 다양한 소통 방식이 가능해졌다.  
 (라) 먼 대 면 소통은 소통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같은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면서 음성, 몸짓, 표정 등을 통해 의미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① (나) - (라) - (가) - (다)      ② (나) - (라) - (다) - (가)
- ③ (라) - (가) - (나) - (다)      ④ (라) - (나) - (다) - (가)

2020 지방직 9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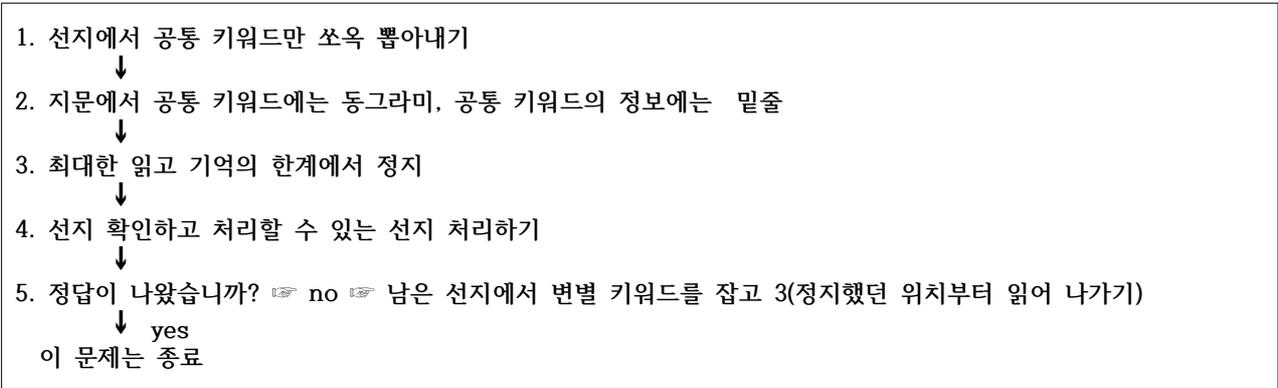
문 4.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11)

ㄱ. 1700년대 중반에 이미 미국 이주민들의 평균 소득은 영국인들의 평균 소득을 넘어섰다.  
 ㄴ. 그러나 미국은 사실 그러한 분야에서는 다른 산업 국가들에 비해 특별한 우위를 갖고 있지 않았다.  
 ㄷ. 미국 이주민들의 평균 소득이 높아지게 된 배경에는 좋은 환경으로부터 비롯된 낙관성과 자신감이 있었다. 이 후로도 다소 불안정하기는 했지만 미국인들의 소득은 계속해서 크게 증가했다.  
 ㄹ.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남북 전쟁 이후 급속히 경제가 성장한 이유를 농업적 환경뿐만 아니라 19세기의 과학적, 기술적 대전환, 기업가 정신과 규제가 없는 시장 경제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ㄹ. 미국인들이 이처럼 초기 정착기에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비옥한 토지, 풍부한 천연자원, 흑인 노동력에 힘입은 농산물 수출 덕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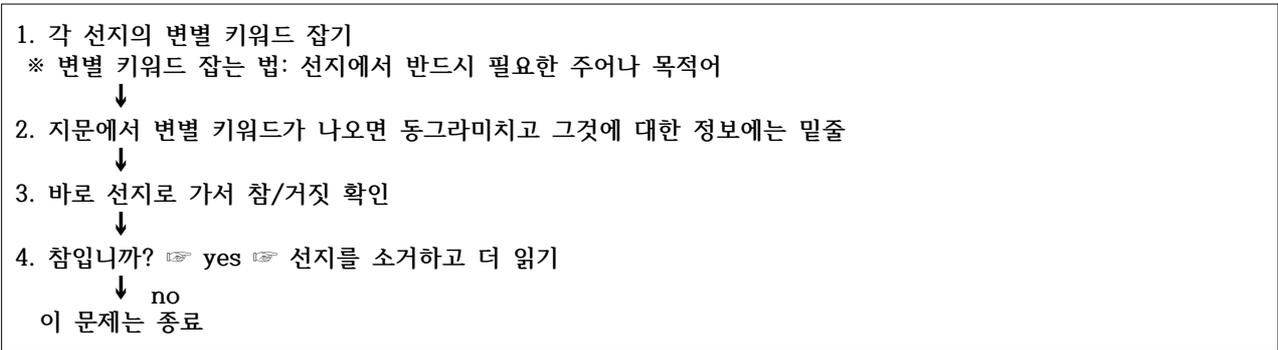
- ① ㄱ - ㄷ - ㄹ - ㄴ - ㄹ      ② ㄱ - ㄹ - ㄷ - ㄴ - ㄹ
- ③ ㄹ - ㄴ - ㄹ - ㄱ - ㄷ      ④ ㄹ - ㄹ - ㄴ - ㄷ - ㄱ

4. 내용확인 and 일반추론 - 확인과 추론

▶ 긍정 발문 유형 공식 알고리즘



▶ 부정 발문 유형 공식 알고리즘



2020 국가직 9급

문 1. 글쓴이의 견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12)

사물 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의 정의로 ‘수십 억 개의 사물이 서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그리 유용하지 않다. 사물 인터넷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물’에서 출발하기보다는 ‘인터넷’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이 전 세계의 컴퓨터를 서로 소통하도록 만든다는 생각이 실현된 것이라면, 사물 인터넷은 이제 전 세계의 사물들을 ‘컴퓨터로 만들어’ 서로 소통하도록 만든다는 생각을 실현하는 것이다. 컴퓨터는 본래 전원이 있고 칩이 있고, 이것이 통신 장치와 프로토콜을 갖게 되어 연결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전원이 있었던 전자 기기나 기계 등은 그 자체로, 전원이 없었던 일반 사물들은 새롭게 센서와 배터리, 통신 모듈이 부착되면서 컴퓨터가 되고 이렇게 컴퓨터가 된 사물들이 그들 간에 또는 인간의 스마트 기기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이다.

현재의 인터넷과 사물 인터넷의 차이를, 혹자는 사람이 개입되는 것은 사물 인터넷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엄격한 M2M(Machine to Machine)이라는 개념에 근거해 설명한다. 또 혹자는 사물 인터넷이 실현되려면 사람만큼 사물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물의 지능성을 중요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두 가지 모두 그릇된 것이다. 사물 인터넷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기존 인터넷과의 차이점에 주목하기보다는 오히려 공통점을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컴퓨터를 서로 연결하는 수준에서 출발한 것이 기존의 인터넷이라면, 이제는 사물 각각이 컴퓨터가 되고, 그 사물들이 사람과 손쉽게 닿는 스마트폰, 스마트 워치 등과 서로 소통하는 것이다.

- ① 사물 인터넷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터넷과의 공통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② 센서와 배터리, 통신 모듈 등을 갖춘 사물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사물 인터넷으로 기능한다.
- ③ 사물 인터넷은 사람 수준의 지능을 가진 사물들이 네트워크상에서 인간의 개입 없이 서로 소통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 ④ 사물 인터넷은 컴퓨터가 아니었던 사물도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인터넷과 다르다

2021년 국가직 9급

문 2.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3)

언어마다 고유의 표기 체계가 있는데, 이는 읽기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알파벳 언어는 표기 체계에 따라 철자 읽기의 명료성 수준이 달라진다. 철자 읽기가 명료하다는 것은 한 글자에 대응되는 소리가 규칙적이어서 글자와 소리의 대응이 거의 일대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 예로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가 있다. 이 두 언어의 사용자는 의미를 전혀 모르는 새로운 단어를 발견하더라도 보자마자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영어는 철자 읽기의 명료성이 낮은 언어이다. 영어는 발음이 아예 나지 않는 묵음과 같은 예외도 많은 편이고 글자에 대응하는 소리도 매우 다양하다.

한편 알파벳 언어를 읽을 때 사용하는 뇌의 부위는 유사하지만 뇌의 부위에 의존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영어와 이탈리아어를 읽는 사람은 동일하게 좌반구의 읽기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하지만 무의미한 단어를 읽을 때 영어를 읽는 사람은 암기된 단어의 인출과 연관된 뇌 부위에 더 의존하는 반면 이탈리아어를 읽는 사람은 음운 처리에 연관된 뇌 부위에 더 의존한다. 왜냐하면 무의미한 단어를 읽을 때 이탈리아어를 읽는 사람은 규칙적인 음운 처리 규칙을 적용하는 반면에, 영어를 읽는 사람은 암기해 둔 수많은 예외들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 ① 알파벳 언어의 철자 읽기는 소리와 표기의 대응과 관련되는데, 각 소리가 지닌 특성은 철자 읽기의 명료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② 영어 사용자는 무의미한 단어를 읽을 때 좌반구의 읽기 네트워크를 활용하면서 암기된 단어의 인출과 연관된 뇌 부위에 더욱 의존한다.
- ③ 이탈리아어는 소리와 글자의 대응이 규칙적이어서 낯선 단어를 발음할 때 영어에 비해 철자 읽기의 명료성이 높다.
- ④ 영어는 음운 처리 규칙에 적용되지 않는 예외들이 많아서 스페인어에 비해 소리와 글자의 대응이 덜 규칙적이다.

2021년 국가직 9급

문 3.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4)

과학의 개념은 분류 개념, 비교 개념, 정량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식물학과 동물학의 종, 속, 목처럼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대상들을 분류하는 개념들이 분류 개념이다. 어린이들이 맨 처음에 배우는 단어인 ‘사과’, ‘개’, ‘나무’ 같은 것 역시 분류 개념인데, 하위 개념으로 분류할수록 그 대상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전달된다. 또한, 현실 세계에 적용 대상이 하나도 없는 분류 개념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니콘’이라는 개념은 ‘이마에 뿔이 달린 말의 일종임’ 같은 분명한 정의가 있기에 ‘유니콘’은 분류 개념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더 무거움’, ‘더 짧음’ 등과 같은 비교 개념은 분류 개념보다 설명에 있어서 정보 전달에 더 효과적이다. 이것은 분류 개념처럼 자연의 사실에 적용되어야 하지만, 분류 개념과 달리 논리적 관계도 반드시 성립해야 한다. 예를 들면, 대상 A의 무게가 대상 B의 무게보다 더 무겁다면, 대상 B의 무게가 대상 A의 무게보다 더 무겁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더 무거움’ 같은 비교 개념은 논리적 관계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량 개념은 비교 개념으로부터 발전된 것인데, 이것은 자연의 사실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물리량을 측정함으로써 만들어진다. 물리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규칙이 필요한데, 그 규칙에는 두 물리량의 크기를 비교하는 경험적 규칙과 물리량의 측정 단위를 정하는 규칙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정량 개념은 자연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현상에 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정량 개념은 과학의 언어를 수많은 비교 개념 대신 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과학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 ① ‘호랑나비’는 ‘나비’와 동일한 종에 속하지만, 나비에 비해 정보량이 적다.
- ② ‘용(龍)’은 현실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시물이 없더라도 분류 개념으로 인정된다.
- ③ ‘꽃’이나 ‘고양이’와 같은 개념은 논리적 관계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물리량을 측정할 수 있는 ‘cm’나 ‘kg’과 같은 측정 단위는 자연현상에 수를 적용할 수 있게 해 주었다.

2020 지방직 9급

문 4.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없는 것은?15)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이라 한다. 자신의 믿음이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는 수용하고 그에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심리 경향이다. 사회 심리학자인 로버트 치알디니는 자신이 가진 기존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는 두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그러한 정보는 어떤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 준다. 둘째, 그러한 정보는 우리를 추론의 결과에서 자유롭게 해 준다. 즉 추론의 결과 때문에 행동을 바꿔야 할 필요가 없다. 첫째는 생각하지 않게 하고, 둘째는 행동하지 않게 함을 말한다.

일례로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사람들은 반대당 후보의 주장에서는 모순을 거의 완벽하게 찾은 반면, 지지하는 당 후보의 주장에서는 모순을 절반 정도만 찾아냈다. 이 판단의 과정을 자기 공명 영상 장치로도 촬영했다. 그 결과,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정보를 접했을 때는 뇌 회로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자신이 동의하는 주장을 접했을 때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뇌 회로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① 사람에게서는 자신의 신념이나 행동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 ② 사람에게서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다.
- ③ 사람에게서는 지지자들의 말만을 듣고 자기 신념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 ④ 사람에게서는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심리적 불안을 느끼는 특성이 있다.

2019년 국가직 7급

문 5.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16)

엄마가 아이에게 하는 “지금 뭐 하니?”라는 말의 의미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이가 컴퓨터로 학교 숙제를 하고 있다면 엄마의 말은 단순한 질문이 될 수 있지만, 게임에 열중하고 있다면 질책이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하면 엄마의 말은 더 다양한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엄마도 컴퓨터를 좀 쓰자는 제안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고, 심부름을 해 달라는 요청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고, 식사 시간이 되었으니 밥을 먹으러 나오라는 명령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이처럼 같은 말도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고받는 말은 일정한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다. 상황에 따른 의미의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오해와 갈등이 생기기 십상이다.

- ① 같은 의미라도 어감의 차이는 생길 수 있다.
- ② 같은 말이라도 억양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다.
- ③ 같은 발화라도 상황에 따라 기능이 다를 수 있다.
- ④ 발화 의미를 해석할 때에는 문자 텍스트 그 자체를 우선시해야 한다.

2018년 국가직 7급

문 6.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정약용의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7)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공직자들의 절용(節用), 즉 아껴 쓰기를 강조했다. 다산이 말한 절용은 듣기에는 매우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자기 돈은 절용하기 쉽지만 정부 돈은 함부로 쓰기 쉽다. 또한 정책 과정에서 온갖 비리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절용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내가 오랫동안 귀양 살면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남겨 줄 재산이 없다. 다만 너희에게 글자 두 자를 유산으로 남겨 준다. 하나는 근(勤)이요, 하나는 검(儉)이다. 너희가 근검 두 글자를 제대로 실천하려고 하면 논 100마지기 200마지기보다 좋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청렴해야 자애로울 수 있고 자애로운 것이야말로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니, 다산은 백성을 통치하려면 먼저 절용에 힘쓰라고 말한 것이다. 다산이 말한 청심(淸心)은 맑은 마음, 깨끗한 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공직자의 기본이다. 공직자는 대가성이 없고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다 해서 적은 돈이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 다산은 청렴이 천하의 큰 장사라 말했다. 청렴이야말로 가장 큰 이익이 남는 일임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다산은 청렴한 사람이 진짜 욕심쟁이라고 했다. 최고의 지위까지 오르려는 공직자는 청렴해야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 다산은 사람들이 청렴하지 못한 이유를 지혜가 모자란 데서 찾았다. 다산의 청렴 사상은 ‘청렴한 사람은 청렴함을 편안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청렴함을 이롭게 여긴다.’(廉者安廉 知者利廉)는 말로 요약된다. 공자는 목표가 인(仁)인 반면 다산은 목표가 청렴이었다. 인은 너무 높은 성현의 이야기이므로 일반인이 인의 경지에 이르기 힘들니 한 단계 낮추어 청렴을 이야기한 것이다.

- ① 공직자들은 금품과 선물을 법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 주고받아야 한다.
- ② 관리들이 청렴하고 자애로우면 백성들이 인을 이룰 수 있게 된다.
- ③ 자손에게 물질적 재산을 남겨 주는 공직자는 청렴하다고 할 수 없다.
- ④ 지혜로운 관리는 청렴함을 통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018년 국가직 7급

문 7.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18)

우리가 들은 특정 소리는 머릿속에 존재하는 어휘 목록 속에서 어떻게 의도된 단어에 접속하여 그 의미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일까? 즉 우리가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그 단어와 다른 모든 단어들이 구별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어떻게 해당 단어의 의미가 정확하게 활성화될 수 있을까? 마슬렌-윌슨(Marslen-Wilson)은 어떤 단어를 듣고 인식하는 데 필요한 조건에 관련된 실험을 진행했다. 그는 실험을 통해 앞부분이 같은 다른 단어들과 구별되는 지점까지 들어야 비로소 어떤 단어가 인식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예를 들어 ‘slander’는 /d/를 들었을 때 비로소 앞부분이 같은 다른 단어들과 확실하게 구별되며, 이 지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slant’와 구별되지 않는다. 여기서 청각 체계로 들어온 소리가 머릿속 어휘 목록의 해당 항목에 접속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활성화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금고를 열기 위한 숫자 조합의 원리와 유사하다. 숫자 조합 자물쇠의 회전판을 올바른 순서로 회전시킬 때, 모든 숫자를 끝까지 회전시키지 않고도 맞아떨어질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특정 소리 연속체를 요구하는 신경 회로들은 진행 중인(하지만 아직 완전히 진행되지 않은) 소리의 연속체로 인해 활성화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slan/은 ‘slander’와 ‘slant’에 관련되는 신경 회로들 전부를 활성화할 것이다.

- ① 머릿속에 저장된 단어들에, 청각 체계로 들어온 음성 신호가 접속하여 의미가 활성화된다.
- ② ‘slander’와 ‘slant’의 의미를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는 각 단어의 발음을 끝까지 들어야 한다.
- ③ 어떤 단어를 머릿속 어휘 목록에서 선택하여 발화하는 과정은 숫자 조합 자물쇠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 ④ 특정 단어와 관련되는 신경 회로는 그 단어와 소리가 유사한 다른 단어들이 구별될 때까지 활성화되지 않는다.

1) ② - 독해(비문학) - 주제

제시된 글은 사람에게는 ‘마음과 이치’를 제하면 귀한 것이 없고, 본능에 따르면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다. ‘본능’에만 따르지 말고 ‘마음과 이치’를 귀하게 여겨야 비로소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시된 글의 주장으로 ‘마음으로 본능을 다스리는 삶에 자세가 필요하다’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해설]

① 글쓴이는 사람은 마음과 이치를 제하면 귀한 것이 없다고 하였다. 반면 사람의 본능은 사람을 짐승과 다를 바 없이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의 이치를 알고자 하는 욕구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본능적’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제시된 글의 ‘가난하고 천하게 살면서 부귀를 사모하고, 부귀하게 지내면서 권세를 탐한다’라는 부분을 통해 ‘빈부’가 ‘인간 삶의 지향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삶의 지향성은 본능에 따른 것이므로 글쓴이가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들이니 글쓴이의 주장으로 볼 수 없다.

④ 제시된 글에 ‘무릇 백 가지 하는 바가 한결같이 본능에 따르니, 늙어 죽은 뒤에야 그만둘 따름이다’라는 부분이 있으나 그렇다면 이를 ‘짐승’이라 비판하는 것이 글쓴이이므로 이를 글쓴이의 주장으로 볼 수 없다.

2) ③ - 독해(비문학) - 주제

첫째 문단은 생명체들이 자신의 환경을 개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들의 행동을 예로 들며 설명하고 그 환경의 변형이 능동적인 행위임을 강조하였다. 둘째 문단은 인간도 다른 생명체와 동일하게 환경에 대해 적극성을 보인다고 덧붙이고 있다. 즉, ‘생명체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행동함으로써 환경을 개조시키며, 그것은 적응이 아니라 능동적인 행동이다’라는 것이 지문의 주장이다. 따라서, ‘생명체는 환경을 능동적으로 변형한다’는 선지가 지문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하다.

[오답해설]

① 둘째 문단의 ‘인간도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생존이나 적응을 넘어 환경에 대한 적극성을 보인다’를 통해 인간이 단순한 적응을 넘어 적극적으로 환경을 개조해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은 환경에 적응해 왔다’는 진술은 지문의 주장과 거리가 멀다.

② 둘째 문단에 따르면, 인간은 생존이나 적응을 넘어 환경에 대한 적극성을 보인다. 또한, 인간의 세 가지 충동은 ‘사는 것, 잘 사는 것, 더 잘 사는 것’으로, 단순한 생존과는 구별되는 충동이 존재한다. 따라서, ‘삶의 기술은 생존을 위한 것’이라는 진술은 지문의 주장과 거리가 멀다.

④ ‘인간이 잘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한다’라는 진술은 타당하지만, 지문의 주요 개념인 ‘능동’에 대한 내용이 없고 논의의 대상을 생명체 전체가 아니라 인간으로만 한정하기 때문에 지문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3) ① - 독해(비문학) - 주제

글은 계몽주의 사상가, 헤겔, 다윈 등의 사람들이 진화와 진보를 어떻게 구분했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역사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이 동일하다고 여기고, 진보를 믿었기 때문에, 자연을 진보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헤겔은 역사는 진보하지만, 자연은 진보하지 않는 것이라고 구분했다. 다윈은 진화와 진보를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진보와 진화에 관한 다양한 견해, 입장 차이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글의 제목은 ‘진보와 진화에 관한 견해들’이 적절하다.

[오답해설]

② 계몽주의 사상가, 헤겔, 다윈의 진보와 진화에 관한 견해는 역사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으로 환원되어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글의 뒷부분에, 다윈의 견해가 진화의 원천과 진보의 원천을 혼동함으로써 더 심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서술하고 있으므로, 이 글의 주된 소재를 진보와 진화로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③ 글은 진화와 진보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진화의 원천이 ‘생물학적인 유전’이라고 서술되고 있으나, 인간 유전이나 그 사회적 의미에 대한 언급은 없다.

④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자연이 진보한다고 본 데 비해, 헤겔은 자연이 진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글은 이러한 입장 차이를 다루고 있으나 그 증거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4) ④ - 독해(비문학) - 전개 방식

제시된 글에서 보살은 자신의 보리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타인에게도 그의 진리를 체득시키고자 정진하는 인간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어 밑줄 친 부분에서는 보살의 이타적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자리(自利)’를 위하여 활동하

는 ‘나한’과 대조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오답해설]

① 유추는 두 대상 사이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빗대어 설명하는 방식으로, 생소하고 어려운 개념을 친숙하고 쉬운 개념에 빗대어 설명한다.

② 묘사는 대상을 말로써 감각적으로 그려 보이는 설명 방식이다.

③ 예시는 어떤 사실이나 현상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이며 설명하는 방식이다.

5) ③ - 독해(비문학) - 전개 방식

<보기>에는 ‘넥타이를 빌려 소중하게 다뤘던 것’에 빗대어 ‘세상에서 그대를 빌려 소중하게 다루고, 사랑하고 아껴 주겠다.’는 ‘유추’가 드러나 있다. ③도 ‘우리 토종 물고기를 돌보지 않은 채 외래종 물고기를 들여 온’ 일에 빗대어 ‘우리말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영어를 들여오는 일’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유추’의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오답해설]

① ‘공부’와 ‘등산’을 ‘대조’하고 있다.

② 단순히 ‘원숭이’와 ‘사과’의 공통점을 산출하고 있으므로, ‘유추’가 아닌 ‘비교’이다.

④ ‘오늘날 고리타분한 전통에만 집착하는 것은 현대 문명의 편리하고 신속한 생활을 무시하는 것’이라 보는 것은 ‘유추’가 아니라 중간이나 정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흑백논리’가 드러나 있는 것이다.

6) ① - 독해(비문학) - 전개 방식

제시된 글은 글의 전개 방식 중 ‘인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①의 첫 번째 문장에는 ‘온실효과’라는 원인이 제시되고 있고, 뒤이어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엄청난 기후 변화, 섬나라 저지대의 침수 등)가 나타나 있으므로, 제시된 ‘인과’의 예로 가장 적절하다.

[오답해설]

② 첫째 문장에서는 이 사회의 경제가 제로섬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분석’을 사용하여 ‘이 사회의 경제’를 설명하였고, 둘째 문장에서는 ‘제로섬’이란 무엇인지 그 특성(어떤 수를 합해서 제로가 된다.)을 ‘확인’하였다. 셋째 문장에서는 ‘운동 경기’로 ‘제로섬’을 구체화하는 ‘예시’를 사용하였다.

③ 찬호가 학교 담을 따라 돈 상황, 고무신을 벗어 쥔 상황, 고양이 걸음으로 보조의 뒤를 빠진 상황, 팽이처럼 교문 안으로 뛰어 든 상황은 전체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의 나열인 ‘서사’를 이루고 있다.

④ 첫째 문장에서 뻑뻑한 소나무 숲에 가린 벼랑 아래를 묘사한 뒤, 멀리 보이는 소읍의 전경을 묘사하고 있다.

7) ② - 독해(비문학) - 전개 방식 부정 발문

주어진 글은 빛 공해에 대해 다루고 있다. 첫째 문장에 나타난 빛 공해의 정의에서 빛 공해의 요인으로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이 제시되기는 했지만, 인공조명의 누출 원인이 제시된 것은 아니다.

[오답해설]

① 첫째 문장에 빛 공해의 정의로서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이나 조명 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인간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가 제시되어 있다.

③ 글쓴이는 국제 과학 저널인 『사이언스 어드밴스』의 ‘전 세계 빛 공해 지도’를 인용하여 우리나라가 빛 공해가 심각한 국가임을 제시하고 있다.

④ 마지막 문장에 수면 부족, 면역력 저하, 농작물의 생산량 저하, 생태계 교란 등의 사례를 통해 빛 공해의 악영향이 제시되어 있다.

8) ① - 독해(비문학) - 배치

‘아침기도는 간략한 아침 뉴스로, 저녁기도는 저녁 종합뉴스로 바뀌었다.’라는 <보기>의 문장은 ‘뉴스 타전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교회의 시간 규범에 따른다.’의 구체화 진술이므로, ㉠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또한 <보기>에서 ‘아침기도’와 ‘저녁기도’를 ‘뉴스’가 대신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므로, <보기> 뒤에 ‘신앙심을 품었을 때와 똑같은 공손한 마음’이 이어지는 것도 적절하다.

9) ③ - 독해(비문학) - 배열

제시된 첫째 문장은 폭설, 즉 ‘대설’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 전환의 접속어 ‘그런데’를 쓴 뒤, 눈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시하였다.

㉠ 대등 병렬의 접속어 ‘또한’을 쓴 뒤, ‘경보’는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지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문장 앞에는 ‘경보’와 유사한 다른 개념이 제시되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제한적 정보를 제시하는 ‘다만’을 쓴 뒤, ‘산지’에서는 경보 발령 상황이 다름을 제시하였으므로 ㉠은 ㉡ 뒤에 위치해야 함을 알 수 있다. → 선지 ②, ④ 탈락

㉢ ‘이때’라는 지시어를 통해 바로 앞의 내용을 이어받아 대설의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첫째 문장에서 ‘대설’이 처음 소개되었으므로, ㉢은 첫째 문장 뒤에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주의보’는 ‘경보’와 유사한 개념이므로, ㉢ 뒤에는 ㉠이 위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 선지 ①, ②, ④ 탈락

㉣ 대등 병렬의 접속어 ‘이뿐만 아니라’를 쓴 뒤, 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의 앞에는 ㉠이 위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를 종합하면, ‘㉠-㉡-㉢’은 대설 주의보와 대설 경보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은 눈이 많이 내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이 된다.

10) ① - 독해(비문학) - 배열

(가) 먼 대 먼 소통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따른다는 내용이다. ‘이처럼’을 통해 (가)에 앞서 ‘먼 대 먼 소통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인간의 소통 방식 중 가장 오래되고 직접적인 것이 ‘먼 대 먼 소통’이라고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다) 현대 사회에서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인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역접의 접속어 ‘그러나’로 시작하므로, 앞서 인간이 소통할 때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가)에서 먼 대 먼 소통 방식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따른다고 언급했으므로, (가)-(다)로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 ②, ③, ④ 탈락

(라) 먼 대 먼 소통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같은 시간과 공간에 존재’라는 표현을 통해 먼 대 먼 소통에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라)의 ‘같은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면서’가 (가)의 ‘이처럼 먼 대 먼 소통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따른다’로 연결되므로, (라)-(가)로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 ②, ④ 탈락

따라서, (나)-(라)-(가)-(다)가 가장 자연스럽다.

11) ① - 독해(비문학) - 배열

ㄱ. 1700년대 중반 미국 이주민들의 평균 소득이 영국인들의 평균 소득을 넘어섰다는 내용이다.

ㄴ.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남북 전쟁 이후 경제 성장의 이유로 농업적 환경뿐만 아니라, 19세기 과학적/기술적 대전환, 기업가 정신과 규제 없는 시장 경제 등을 꼽으며, 단순하게 생각한다든 내용이다.

ㄷ. 미국이 ‘그러한’ 분야에서 다른 산업국가들에 비해 특별한 우위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라는 역접의 접속어로 문장이 시작하므로, 앞서 현재 문장과는 반대의, 미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위를 가진다는 일반적인 생각이 제시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에 해당하는 분야들이 앞서 제시되어야 한다. ㄴ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경제 성장의 이유를 단순하게 생각한다든 내용이고, ㄴ에서 여러 분야가 제시되었으므로, ㄴ-ㄷ의 순서가 자연스럽다. → ②, ④ 탈락

ㄹ. 미국 이주민들의 평균 소득이 높아지게 된 배경으로 좋은 환경으로부터 비롯된 낙관성과 자신감을 제시하고 있다.

ㅁ. 미국인들이 초기 정착기에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비옥한 토지, 풍부한 천연 자원, 흑인 노동력이었다는 내용이다. 경제적 풍요로움을 말하고 있는 문장은 ㄱ(평균 소득)과 ㄴ(경제 성장)인데, ㄱ은 ‘1700년대 중반’을, ㄴ은 ‘19세기’를 말하고 있으므로, ㅁ에서 말하는 초기 정착기는 ㄱ을 의미한다. 따라서, ㄱ이 ㅁ보다 먼저 제시된다. → ③ 탈락

따라서, ㄱ-ㄷ-ㅁ-ㄴ-ㄹ의 순서가 가장 자연스럽다.

12) ③ - 독해(비문학) - 내용 확인 부정 발문

글쓴이는 기존 인터넷과 공통점을 기준으로 ‘사물 인터넷’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존 인터넷이 전 세계의 컴퓨터

를 서로 소통하도록 한 것이라면, ‘사물 인터넷’은 사물 각각이 컴퓨터가 되고, 그 사물들이 서로 소통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글쓴이는 둘째 문단에서 ‘혹자들이 기존의 인터넷과 사물 인터넷의 차이점에만 주목하면서 (1)사람이 개입되지 말아야 하고 (2)사물의 지능성을 중요시하는 경우를 사물 인터넷의 특징으로 제시하지만 이는 모두 그릇된 것’이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사물 인터넷’이 ‘사람 수준의 지능’을 가진 사물들이 네트워크상에서 ‘인간의 개입 없이’ 서로 소통하는 것으로 정의된다는 선지는 글쓴이 견해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답해설]

- ① 글쓴이는 둘째 문단에서 ‘사물 인터넷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기존 인터넷과의 차이점에 주목하기보다 공통점을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였다.
- ② 글쓴이는 첫째 문단에서 ‘사물들에 센서와 배터리, 통신 모듈이 새롭게 부착되면서 컴퓨터가 되고 이렇게 컴퓨터가 된 사물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말하였다.
- ④ 글쓴이는 컴퓨터가 아니었던 사물들이 각각 컴퓨터가 되고 그 사물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을 ‘사물 인터넷’이라 설명하고 있다.

13) ① - 독해(비문학) - 일반 추론 부정 발문

첫째 문단에 따르면 ‘알파벳 언어는 표기 체계에 따라 철자 읽기의 명료성 수준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철자 읽기의 명료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각 소리가 지닌 특성’이라는 ①은 글의 내용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아니다.

[오답해설]

- ② 둘째 문단에 따르면, 영어와 이탈리아어를 읽는 사람은 모두 좌반구의 읽기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그리고 무의미한 단어를 읽을 때는 영어를 읽는 사람이 이탈리아어를 읽는 사람에 비해 암기된 단어의 인출과 연관된 뇌 부위에 더 의존한다. 따라서 영어 사용자는 무의미한 단어를 읽을 때 좌반구의 읽기 네트워크를 활용하면서도 음운 처리에 연관된 뇌 부위보다 암기된 단어의 인출과 연관된 뇌 부위에 더 의존할 것이다.
- ③ 첫째 문단에 따르면,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는 한 글자에 대응되는 소리가 규칙적이어서 의미를 전혀 모르는 새로운 단어를 발견하더라도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다. 즉 이탈리아어는 낯선 단어를 발음할 때 영어에 비해 철자 읽기의 명료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④ 첫째 문단에 따르면, 영어는 묵음과 같은 예외가 많고 글자에 대응하는 소리도 매우 다양하다. 이는 스페인어에 비해 소리와 글자의 대응이 덜 규칙적이라는 의미이다.

14) ① - 독해(비문학) - 일반 추론 부정 발문

제시된 글은 과학의 개념인 ‘분류 개념, 비교 개념, 정량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호랑나비’와 ‘나비’의 관계는 이 중에서 ‘분류 개념’에 해당한다. 첫째 문단에 따르면 ‘분류’에서 하위 개념으로 분류할수록 그 대상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전달된다. 따라서 하위 개념인 ‘호랑나비’는 상위 개념인 ‘나비’에 비해 정보량이 더 많다.

[오답해설]

- ② 첫째 문단에 따르면, ‘유니콘’은 현실 세계에 적용 대상이 없더라도 분류 개념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용’ 역시 현실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시물이 없더라도 ‘분류 개념’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 ③ 둘째 문단에 따르면, ‘비교 개념’은 ‘더 무거움’, ‘더 짧음’과 같이 논리적 관계이다. 따라서 ‘꽃’이나 ‘고양이’는 ‘비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셋째 문단에 따르면, ‘정량 개념’은 자연의 사실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물리량을 측정함으로써 만들어진다. 이러한 ‘정량 개념’은 우리가 자연현상에 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생겨난다. 따라서 물리량을 측정하는 ‘cm’나 ‘kg’과 같은 측정 단위가 자연현상에 수를 적용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것은 추론 가능하다.

15) ④ - 독해(비문학) - 일반 추론 부정 발문

지문의 소재는 확증 편향으로,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이를 수용하거나 무시/부정하는 심리적 경향에 관한 내용이다.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심리적 불안을 느끼는 특성에 대한 언급은 없다.

[오답해설]

- ① 첫째 문단에 따르면, 확증 편향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으로, 우리를 생각하지 않게 하고, 행동하지 않게 한다. 즉, 확증 편향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이나 행동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경향인 것이다. 따라서, ‘사람에게는 자신의 신념이나 행동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선지는 적절하다.

② 확증 편향으로 인해 우리는 자신의 믿음이나 견해에 일치하는 정보는 수용하고 그에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부정한다. 둘째 문단의 예시를 보면, 사람들은 반대당 후보의 주장에서는 모순을 거의 완벽하게 찾은 반면, 지지하는 당 후보의 주장에서는 모순을 절반 정도만 찾아냈다. 즉, 확증 편향은 사람들이 정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인 것이다. 따라서, ‘사람에게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다’는 선지는 적절하다.

③ 확증 편향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가진 기존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만을 수용한다. 또한, 확증 편향은 우리의 신념과 행동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지지자의 말은 기존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로, 신념의 강화는 신념의 유지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지지자들의 말만을 듣고 자기 신념을 강화하는 경향’은 확증 편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16) ③ - 독해(비문학) - 내용 확인 긍정 발문

제시된 글은 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이해되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즉, 우리가 주고받는 말은 일정한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는 제대로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오답해설]

① 제시된 글에서는 같은 의미인데 어감의 차이가 나는 내용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다. 제시된 글은 “지금 뭐 하니?”의 예를 통해 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 다른 기능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② 제시된 글의 “지금 뭐 하니?”는 같은 말이라도 억양이 아닌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④ 제시된 글에 따르면 같은 말도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일정한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이해될 수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문자 텍스트 그 자체를 우선한다는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17) ④ - 독해(비문학) - 내용 확인 및 추론 긍정 발문

‘최고의 지위까지 오르려는 공직자는 청렴해야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에서 알 수 있듯, 지혜로운 관리일수록 청렴함을 통하여 자신의 목표를 보다 잘 이뤄낼 수 있다고 하였다.

[오답해설]

① ‘공직자는 대가성이 없고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다 해서 적은 돈이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를 통해, 공직자들은 사사로운 금품을 아예 주고받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② ‘공자는 목표가 인(仁)인 반면 ~ 청렴을 이야기한 것이다.’라는 문장 통해 인(仁)이라는 과도하게 높은 성현의 경지라고 보고, 관리들에게 한 단계 아래의 청렴을 지키라고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관리들의 청렴을 통해 백성들이 인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다.

③ ‘다산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에서 볼 수 있듯 정약용은 자손에게 재산이 아닌 ‘근’과 ‘검’을 실천하라는 말을 남겼다. 하지만 자손에게 재산을 남겨 주는 공직자가 청렴하지 못하다고 한 적은 없다.

18) ① - 독해(비문학) - 내용 확인 및 추론 긍정 발문

예시 분석에서 ‘여기서 청각 체계로 들어온 소리가 ~ 접속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활성화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라는 문장을 통해 청각 체계를 통해 들어온 소리가 머릿속 어휘 목록의 해당 항목에 접속하며, 그것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해설]

② ‘그는 실험을 통해 ~ 인식된다는 것을 알아냈다.’라는 문장을 통해 ‘slander’와 ‘slant’는 동일한 부분인 ‘slan’까지는 구별이 불가능하며, 다른 한 단어와 확실하게 구별되는 지점인 /d/ 또는 /t/를 들었을 때 비로소 다른 한 단어와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단어의 발음을 끝까지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숫자 조합 자물쇠의 원리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발화의 과정이 아니라, 청각 체계로 들어온 소리(단어)를 들으며 다른 단어들과 구별해 내는 과정이다.

④ 마지막 부분에 제시된 ‘/slan/’의 예시를 보면, 청각 체계를 통해 들어온 소리가 특정 단어와 관련되는 신경 회로들 전부를 활성화한 뒤, 유사한 다른 단어들과 구별되는 지점까지 들으며 확실히 구별되는 것이다.